

# 2 사람과 이웃인 자연



## 뛰쳐나오는 에조 사슴

어! 위험! 수컷 사슴이 도로에 뛰쳐나왔습니다. 근년, 에조 사슴의 폭발적인 증가로 자동차의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열차와 충돌하거나 선로에 사슴이 비집고 들어가는 바람에 열차 운행 시간이 흐트러지는 등 철도의 피해도 상당합니다. 농작물이 먹히는 피해는 매우 심각하며 피해액은 연간 수십억 엔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증가한 사슴은 겨울에 온 나무의 껍질을 먹기 때문에 나무가 시드는 등 생태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슴의 증가는 사람들의 생활에도 원인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 사람과 이웃으로 사는 삶

홋카이도에서는 시가지나 도로와 가까운 곳에도 몸집이 큰 동물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에조 사슴에 의한 농업 피해나 교통사고, 먹이를 찾기 위해 산으로부터 내려와 시가지에 나타나는 큰곰. 동물들과 사람의 거리가 지나치게 가까우면 서로 충돌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쓰레기를 뒤지는 여우나 큰부리까마귀. 해안의 벼랑 대신에 빌딩 옥상에서 새끼를 키우는 큰재갈매기. 사람의 이웃으로 사는 삶을 선택하고 사람의 생활을 잘 이용하고 있는 생물도 있습니다.

19세기 후반에 본격적인 개척이 시작했을 당시의 홋카이도는 대부분이 숲으로 우거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평야 대부분은 시가지나 농지로 바뀌고 남겨진 삼림도 원생림이라고 할 수 있는 숲은 거의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그럼에도 인구 200만 명 가까운 대도시, 삿포로에도 큰곰이 서식하는 숲이 있어 주택지에 큰곰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사람의 생활권과 풍부한 자연이 서로 이웃 관계를 맺고 있는 모습이 홋카이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도 생물들의 다양한〈유대〉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생활은 이웃에 사는 생물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한편 생물의 존재가 사람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19세기 말경에는 멸종 직전이었던 에조 사슴이 최근에 급격하게 증가한 이유는 목초 지역 등의 먹이를 얻기 쉬운 장소나 겨울을 보내기 좋은 식림지가 증가한 것도 원인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활 때문에 생태계가 바뀐 동물도 있습니다. 도로변에서 먹이를 조르는 여우의 모습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본래는 해안의 벼랑 등에 동지를 만드는 큰재갈매기가 삿포로 중심부의 빌딩 옥상에서 새끼를 키우는 경우도 증가했습니다.

외래종의 증가는 큰 문제입니다. 서양뒤영벌은 온실 재배용 토마토의 꽃가루받이를 위해서 도입된 것이 야생화하여 급속히 증가하였습니다. 에조 뒤영벌 등 재래 뒤영벌의 종류와 꿀을 둘러싼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만약 재래 뒤영벌이 멸종하면 그 벌이 꽃가루를 옮기던 식물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몇십만 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룩해온 "생물들의 홋카이도"는 불과 백 수십 년 사이에 크게 그 모습을 바꾸었습니다. 사람과 다른 생물은 어떻게 하면 함께 살아갈 수 있을지 숙고해야 합니다.



## 새로운 침입자들

외국이나 혼슈 등으로부터 사람이 반입한 생물을 "외래종"이라고 부릅니다. 홋카이도에서도 근년에는 외래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외래종의 침입, 정착은 사람의 일상생활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으며 또한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아메리카너구리는 홋카이도의 거의 전역에 퍼지고 옥수수나 딸기를 들쑤서 먹는 등의 피해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홋카이도 삿포로 삼림공원에서는 아메리카너구리의 침입으로 그때까지 안전했던 나무 위에 장만하는 동지의 보존이 어려워지자 왜가리가 동지를 포기하고, 봄에 산란을 위해 모여드는 에조 도롱뇽이 아메리카너구리에게 대량으로 먹고 있습니다.